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2월 2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18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전 선 속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라남도 보성의 한 시골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동네 언니, 오빠를 따라서 멀리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특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성탄절 새벽에 집집마다 돌며 새벽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던 일이 지금도 어제의 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하여 직장 다니면서, 서울로 올라갈 때 전도사님이 다닐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으나 주일에도 출근하여 일을 하느라 차일피일 교회에 다니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여 큰 아이를 낳아 양육하면서 예배를 사모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세를 들어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여서 1년 만이라도 더 살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것처럼 난처하게 되었을 때 안양에서 살고 있던 이종사촌 언니의 도움으로 안양시로 이사하였습니다. 저는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안양으로 이사하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며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사한 며칠 후, 사촌언니가 은혜와진리교회의 수구역장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수구역장님은 무척 반가워하시며 친절하게 교회와 목사

님을 소개해 주시고, 당장 이번 주부터 구역예배를 드리자고 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교회의 예배와 구역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수구역장님은 제가 어린 두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느라 힘에 부칠 때는 제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생활에 적응을 잘하도록 여러모로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친구가 무척 부러웠고 그런 저의 미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정이 복음화 되는 소망을 가지고 두 아이를 데리고 교구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가는 시간에 특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집 현관문에 교패를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남편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남편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은 심성이 착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술자리를 좋아하여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퇴근 시간이 되어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겠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으면 그때부터 저는 긴장을 하고 예민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들어오질 않는 남편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저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에,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는 몇 달 후, 남편이 저를 따라서 교회에 가겠다고 하더니 주일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십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그 장면이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하게 저장되어 있고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기쁘고 마음속 깊이 몽글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 성당을 다녔던 남편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음 참석한 예배의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씀하면서, 마리아는 존경해야 하는 대상이지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라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저의 걱정이 불필요한 걱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불신자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전도방법임을 알았습니다. 것처럼 남편을 위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예비하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고 깊은 사랑에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남편은 지금 안수집사로서 남성봉사연합회에 소속하여 즐겁게 교회를 섬기며 성도님들을 위해 힘껏 봉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좁은 집에서 생활하다가 구역장 직분을 받고 구역예배와 구역장 기도회를 드리면서 넓은 집에서 구역 성도님들을 모시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던 곳이 재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끝나 새집에 입주할 때까지 전셋집으로 옮겨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차 경매 때는 주인이 잘 해결을 해서 다행으로 여기고 새집의 입주 기한이 다가와 이사할 준비를 할 때에 다시 2차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고 대출받은 이주비와 중도금 상환일이 다가오는데,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가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구장님과 교구의 권사님과 구역장님들께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한편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면서 집주인에게 이삿날을 통보하고 전세금의 이자를 요구하여 차용증 같은 문서를 받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매달 정한 날짜에 꼬박꼬박 이자를 입금해 주고 있어서 이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크게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변함없이 예배중심으로 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구역장과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큰 아이는 교회학교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고 깊어져서 저희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는 신령한 즐거움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 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8단원 : 성도의 영적 싸움)

(제37과)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

- 본문 : 요한일서 4:1-6

• 요절 :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 이니라”(요일 4:1)

• 찬송 : 259장(새찬송가 502장), 400장(새찬송가 358장)

기독교 이단의 기원은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거의 기독교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수록된 사도들의 서신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단에 대한 경고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초대교회 시대 당시의 이단들은 기독교 2천년 역사의 각 시대마다 예외 없이 생겨났던 모든 이단들의 뿌리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이단들 역시 근본적으로 볼 때 초창기의 이단들에 비해 새로운 것이 없으며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에 대하여 알게 되면 오늘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들의 그릇된 주장들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우선 ‘율법주의’(에비온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 중에는 율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여기에 인간편에서 율법을 지킨 공로를 첨가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안식교와 같은 이단 종파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등 율법의 준수를 내세우는 점에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가르치고 율법주의의 그릇된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단죄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영지주의’(노스티시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회랍의 이원론적 철학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靈)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악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며 우리가 본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은 단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라는 가현설(假現說)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2~3)는 말씀으로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오늘날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한 번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다시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도덕폐기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의 육적 타락과 방종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의 유일한 객관적 기준인 성경을 무시하고

직통 또는 직접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진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 복음선교원’과 같은 집단은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이단으로서 초대교회시대의 이단인 단일신론(모나키안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으로서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고백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흡족해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 대한 최초의 신앙고백이며 가장 완벽한 신앙고백으로서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베드로의 신앙고백’의 형식은 그냥 둔 채 내용을 변경시키는 이단적인 주장이 등장하였습니다. 주후 4세기경에 아리우스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은 아니며 아버지께 의해 창조된 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지만 인간보다는 우월한 존재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과 같습니다. 아리우스의 이 같은 교리는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으며, 교회는 ‘성자와 성부는 본질이 동일하다’는 교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은 기독교 교회가 교리로 정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에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고 하였고, 로마서 9장 5절에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신앙고백은 이단을 분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증거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에 굳게 서서 다양하고 집요하게 도전해 오는 영적 미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겠습니까.